발리 민주주의 포럼 윤병세 외교장관 연설문

- '14. 10. 10.(금), 인도네시아 발리 -

마티 장관님, 귀빈 여러분,

발리 민주주의 포럼 출범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발리 민주주의 포럼은 많은 것을 이루어냈으며, 유도요노 대통령님의 현명한 지도하에 아태 지역의 민주주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으뜸가는 장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발리 민주주의 포럼은 또한 제1차 회의 결과문서에서 잘 나타나듯이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아태 지역 국가들이 다양한 정치적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은 하나의 대세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역내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도입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세계적 민주화 추세로 인해 민주화 문제라든가 그 진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화하는 역내 민주주의 양태: 정치 발전, 대중 참여 및 사회경제적 진보에서의 도전'이라는 회의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 상황과 부합하다는 점에서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십년간 온갖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해온 한국에게는 이러한 도전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거쳐 성숙한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시장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공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해야 할 일이 마무리된 것도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과제는 성장의 혜택을 고루 나누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박근혜 정부가 국가 중심의 발전에서 국민 중심의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이유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서로를 추동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고, 성장의 궁극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단국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북한 주민들도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완결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전쟁, 빈곤, 정치적 혼란이라는 고통을 겪은 국가로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응분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한국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앞으로 구현코자 하는 비전을 여러분들과 공유코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입니다. 이 점에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법치 증진, 부패 척결, 민주적 참여 확대에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서로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내 민주주의 공동체를 증진하기 위한 시민사회 연합으로서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작년에 결성된 것은 의미가 크며, 우리 정부는 역내 26국가,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시민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한 민주적 시민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더 나은 세계를 이끌어갈 민주적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 Education)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회의」 계기 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한국은 2015. 5월 제3차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개최하고, 동 계기에 글로벌시민교육을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셋째, 여성의 참여 확대 또한 다른 요소들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소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괴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여성 정치후보자의 발굴과 육성, 공직에 대한 양성평등 채용목표비율제 실시 등 공공 부문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2년 12월 동북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사실은 이러한 큰 흐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넷째, 국내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도 질적 성장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포용적 성장의 추구이며, 이 점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안서'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의 이행을 위해 한국 국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이 결성되어 SDGs의 전 세계적 확산을 지지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의장님, 귀빈 여러분,

많은 역내 국가들은 유엔 헌장에 담겨져 있는 평화, 개발,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보조를 같이 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최근 질서있게 선거를 치른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지역적, 범세계적 노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고립에서 벗어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민주주의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기능하는 사회(well-functioning society) 건설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정의로운 수단'입니다. 비단 한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역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어 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잘 싸우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민주주의는 자유와 번영의 기반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해답입니다. 민주주의는 중단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타야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